본회퍼의 “성도의 공동생활”을 읽고 (선교사들 온라인 책 읽기 모임) 2021.1/4- 2/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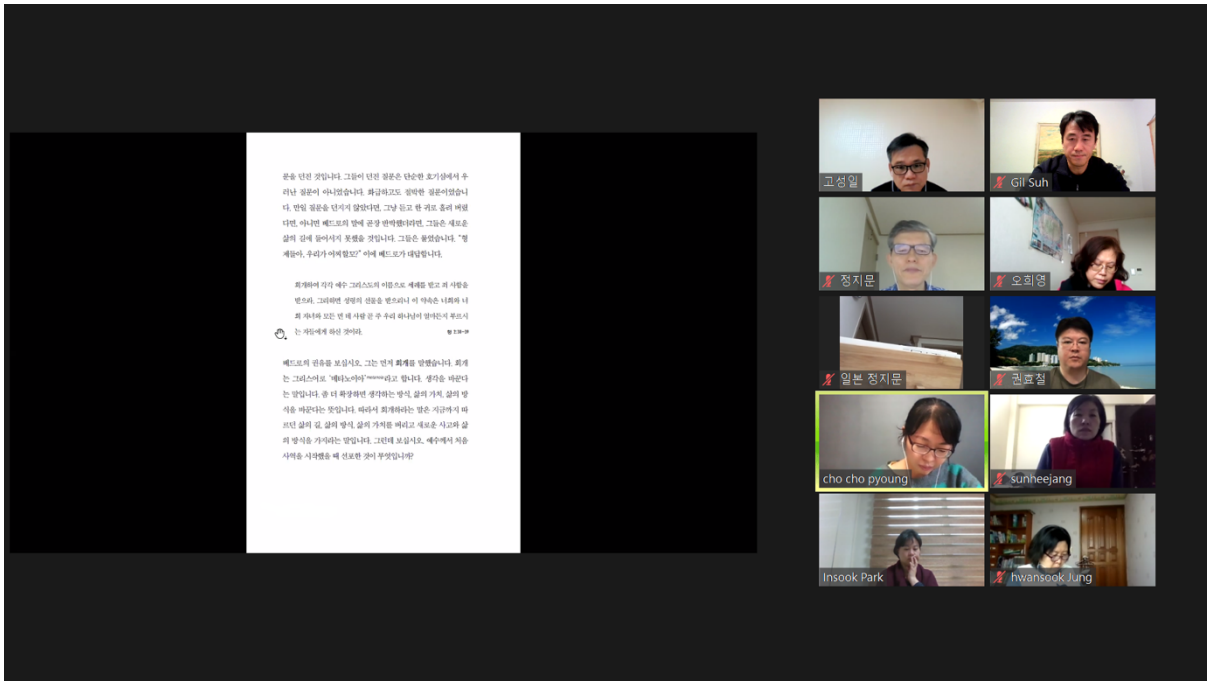
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고 ,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운데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내용이 깊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. 구원받음에 있어서도 오직 그리스도,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도 오직 그리스도임을 온맘으로 고백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. (정지문-일본 선교사)

기독교 신앙 생활의 핵심은 공동체이다.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 하나를 이루며 성장해 간다. 이 세대에 우리가 되 찾아야할 유산이다.
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중 입니다. ‘참된 믿음 아래 올바른 삶이란 무엇일까?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?’ 고민하는 한 주입니다.
다음 책도 기대가 됩니다. 어려운 시국에 아버지가 주시는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. (강호진-베트남 선교사)

그토록 소망하는 공동체의 너무도 또렷한 청사진을 보게 해 주시고 그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위에서만 존재하며,중보기도로 성령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도록 기도하며, 들어주고 ,도와주며, 짐을 짊어져줄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 실체가 되는 공동체! 이런 공동체를 주여 저 일본땅에 세우는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.
아멘. (김은옥-일본 선교사)

성도의 공동생활 책을 읽으며 다가온것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고민했던 공동체의 모습과 삶에 대해 내 자신 먼저 재 정립을 다시 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
일이 성취되도록 힘쓰기전에 주님이 이루고 싶으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곳곳마다 알어나기를 소망합니다. (장미애-이집트 선교사)

선교사 성경읽기 Korean Missionaries PRS



선교사 책읽기 Korean Missionaries JSU